

##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노라” 장애 아동 안락사 확대 논의에 비판 확산



캐나다 의사들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안락사가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캐나다의 안락사 및 조력자살 제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魁北克 의사회(CMQ)를 대표해 의회 합동위원회에서 발언한 루이 로이 박사는 이전에도 “심각한 기형”이나 “매우 중대한 의학적 증후군”을 가진 아기들에게 안락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魁北克 의사회는 지난달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의 생명을 고의로 끝내는 행위가 “돌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디스커버리 연구소 인간 탁월성 센터의 웨슬리 J. 스미스는 “캐나다가 안락사의 심연에 너무 뛰어들고 있어, 결국 영아살해까지 허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고통의 해답으로 살해가 허용된다면 왜 성인에게만 제한해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6년 처음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임종이 가까운 말기 환자만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1년에는 이 조건이 없어져 죽음이 임박하지 않아도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에는 정신 건강만을 이유로 한 안락사를 2027년부터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2023년 의회 위원회는 특정 조건하에 아동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수감자에게 더 쉽게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魁北克 의사회의 권고가 수용된다면, 캐나다는 생후 1년 미만 아기에게 대해 부모 동의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판단되면 안락사를 허용하는 네덜란드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 미국 시사 잡지 애틀랜틱은 네덜란드가 “1939년 나치 독일 이후 처음으로” 영아 안락사를 도입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토론토대 법학 교수 트루도 레멘스는 “캐나다의 실험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한 번 합법화가 시작되면 많은 의사들이 이 행위를 정상화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라며,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쉽게 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캐나다에서 안락사 및 조력자살로 사망한 인원은 15,34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7%에 해당한다.

영국 생명권 단체 ‘라이트 투 라이프’의 캐서린 로빈슨은 “장애 아동 안락사를 옹호하는 것은 끔찍한 행위이자 명백한 우생학적 차별”이라며,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기들은 돌봄을 받아야 하며 가족들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는 가장 취약한 국민을 안락사 대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출처: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기도24·365본부 종합).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이사야 45:11-12)

하나님, 안락사 법안이 통과된 이후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들 사이에 신생아 살인을 치료라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는 캐나다를 애��하는 심령으로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일삼고 창조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다 여기는 저들의 교만함을 책망하여 주소서. 캐나다의 교회를 깨워주사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왜곡하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장애 아동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왕 되신 주님 앞에 신실한 나라로 회복하여 주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반정부 시위 51명 사망’ 네팔, 의회 해산…내년 3월 총선

네팔에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51명이 숨지고 1,300명 이상이 다친 가운데, 시위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전직 대법원장 수실라 카르키가 임시 총리로 취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하원을 해산하고 내년 3월 5일 총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행정 수반에 오른 카르키 총리는 6개월간 임시정부를 이끌며 곧 신임 장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2016년 네팔 첫 여성 대법원장이었던 그는 강단 있는 판결로 대중적 지지를 얻어 시위대와 정당들로부터 임시 지도자로 선호됐다. 전문가들은 카르키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시위 과정의 폭력과 피해 조사, 책임자 처벌, 부패 통제와 치안 강화 등을 꼽는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지난 5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 등 26개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한 데 반발해 촉발됐다. 정부는 가짜 뉴스 확산을 이유로 들었으나, 청년층은 이를 온라인 반부패 운동 억압으로 규정했다. 특히 고위층 자녀들의 호화 생활과 국민들의 생활고가 SNS에 대비되며 분노가 확산, 카트만두를 넘어 전국으로 시위가 번졌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잠언 21:13,15)**

하나님, 전국적으로 확산한 반정부 시위가 격렬한 폭동과 시위대의 반발로 많은 우려를 낳았던 네팔의 시위를 잠잠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시정부와 총선을 통해 세워질 의회를 주께 의탁하오니, 위정자들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죄인임을 알 수 없는 네팔의 영혼들을 궁휼히 여기사 복음의 강력한 선포 앞에 세워주시고 의로우신 주만 바라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네팔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 ▲ 아프간, 대지진 후 3만 7,000 아동 영양실조 위기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30년 만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3만 7,000명의 아동이 영양실조 위험에 놓여 있다고 최근 밝혔다. 재난 상황 대응 조직체 ‘영양 클러스터’에 따르면 아프간 내 5세 미만 아동 3만 7,000명, 임신부와 수유부 1만 명이 중증 또는 급성 영양실조를 겪을 위험에 처했다. 현재 지진 피해 지역에 9만여 명의 영양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지진으로 최소 6개 보건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1곳은 지진으로 붕괴됐다. 올해 원조 삭감으로 아프간 동부 지역 내 80개 보건 시설이 폐쇄되고, 아프간 전역에 422개 보건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을 중단했다. 세이브 더칠드런 아프간 디렉터 사미라 사예드 라만은 “영양실조를 겪는 아동은 흔한 아동기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11배 증가한다. 보건소가 닫으면 먼 거리를 이동해 더욱 위험하다”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번 지진으로 국가 인구 절반에 가까운 2,300만 명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이사야 60:20)**

하나님, 아프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수만 명의 아동이 질병과 영양실조의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털레반 집권 후 국제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주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무서운 재난에 목숨은 건졌지만,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이들의 심령을 일으켜 주옵소서. 복음에 가장 적대적인 그 땅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산소망이 전파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빛이 영원히 함께하여 아프간의 슬픔의 날이 끝나게 하소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경찰, 군목 서비스 출범…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치안 사명**



카리브해 세인트루시아에서 왕립 세인트루시아 경찰청(RSLPF)이 새로운 경찰 군목(Chaplaincy) 서비스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출범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에베소서 6:10)는 말씀으로 선포되었으며, 7월 23일 열린 창립 예배는 뜨거운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가득했다.

행사에서 30년간 경찰로 복무해 온 크루시타 데스카르트 펠리우스 경찰청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그녀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범죄를 막는 일만이 아니라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땅에서 하는 일은 이곳에서 대가를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영원한 곳에서 상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번 군목 서비스의 시작을 “중대한 순간”이라고 표현하며, 2020년 9월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된 경찰 예배 모임이 정식 제도로 발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목 서비스는 경찰관들의 정서적·심리적·영적 필요를 돌보아 “행복한 경찰관이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관들이 매일 범죄와 맞서며 겪는 영적 전쟁과 현실적 위험을 언급하며,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찰의 사명을 단순한 직업이 아닌 소명으로 정의하며, 경찰관들은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지게 되지만 우리의 잔을 채워줄 ‘생수의 샘’이 없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엘리자베스 베일리 내무부 차관과 리키 퀸란 부차관, 세인트루시아 세관·소방청 관계자, 웨슬리안 교회, 리바이벌 센터 미니스트리, 리뎀션 미니스트리 등 교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행사에서 앤드레 마르키 경사는 군목 제도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하며, 새 모임 이름을 ‘그리스도 안의 경찰관들’(OIC, Officers in Christ)로 소개했다. 그는 이 약자가 경찰 조직에서 쓰는 ‘지휘관’(Officer in Charge)과 같아, 신앙과 조직 두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고 말했다. 덴버 토마스 경감은 평화의 메세지가 담긴 설교를 전했고, 민간 군목으로 섬기는 커라인 조지가 간증을 나누며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다(출처: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 기도24·365본부 종합).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이라(고린도전서 15:58)**

하나님, 작은 섬나라 세인트루시아의 경찰청에 군목이 세워져 경찰관들의 영적 필요를 돌보며 자신의 부르심이 단순히 육체적 필요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수많은 사건, 사고에 직면하는 경찰들을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보사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이들의 섬김과 몸 된 교회의 연합이 세인트루시아를 복음화하는 일에 부흥의 불씨가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백성 되게 하소서.

### ▲ 고리 대출의 늪에 빠진 파키스탄 기독교인, 기독단체 도움으로 탈출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며, 사회에서 차별과 박해에 직면해 있다. 교육과 고용 기회에서 배제되고, 신성모독법 남용과 폭력 속에서 살아간다. 빈곤으로 고리 대출에 의존하다 벽돌 공장에서 세대를 이어 채무노동에 끓이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구조적 절망 속에서 글로벌크리스천릴리프(GCR)는 25년간 채무노예 상태로 살아온 아지브(Azeeb)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는 딸들의 지참금을 마련하려고 고리 대출의 늪에 빠져 새벽 4시부터 벽돌을 굽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빚은 줄지 않았고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위기였다. 아지브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유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3개월 만에 빚을 갚고 자유를 얻었다. 이후 그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더 이상 임금을 착취당하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생활은 안정됐다. 특히 아들 아쉬르(Ashir)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서 딸 빈차(Vincha)의 결혼 준비도 빚이 아닌 저축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크리스천릴리프 대표 브라이언 오름(Brian Orme)은 직접 아지브 가족을 방문해 변화된 삶을 목격하며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며, 여전히 벽돌 공장에 갇힌 수많은 기독교인의 해방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시편 116:4-5)**

하나님, 고리 대출에 의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파키스탄의 아지브 형제의 신음과 같은 간구에 응답하사 자유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차별과 박해 속에 살고 있는 파키스탄 성도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그들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는 단체들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몸 된 교회의 간구를 통해 속히 파키스탄에 주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소서. 모든 불법과 우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되게 하소서.

### ▲ 한국,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출범…“생명 존중과 여성 보호 위해 연합”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낙태 후유증으로부터 여성의 보호하기 위해 70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이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감사예배와 기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사장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맡았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창립 예배에서는 김운성 목사(영락교회)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은 생명의 절대 가치를 선언한 것”이라며 “이 운동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훈 목사는 개회사에서 “태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약자”라며 “생명 이슈는 정치적 영역을 넘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태여연은 낙태 문제를 태아 보호와 여성 건강의 관점에서 대응하는 단체로, 앞으로 ▲정부 정책·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과 악법 폐기 운동, ▲국회 앞 1인 시위·차량 시위·집회, ▲100만 서명운동 및 의료계 연대, ▲교육·홍보 활동과 임산부·태아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태여연은 오는 9월 25일 ‘만삭 낙태 반대 국회 학술세미나’, 27일 ‘종교 자유 수호 국민대회’, 10월 21일 ‘약물 낙태 문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태복음 16:26)**

하나님, 주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태아와 여성의 보호하기 위한 연합 단체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사 낙태를 결정한 여성들이 돌이켜 생명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성적 타락과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두운 심령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길 간구합니다. 몸 된 교회가 스스로 겸비하여 주 앞에 나아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들에게 하나님 경의하는 삶을 진리 안에서 가르쳐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나라되게 하소서.

##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성인 절반, “소셜미디어 없는 세상 원한다”



독일 국민들이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의 편리함은 누리면서도 동시에 정신 건강 악화, 사회적 기술 저하, 청소년 보호 문제 등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에반젤리컬포커스가 최근 보도했다. 독일 경제교육연구센터(ifo)가 독일 전역의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육 조사 2025’에 따르면, 성인의 47%가 “소셜 미디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

반면 40%는 소셜미디어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소년(14-17세)은 68%가 소셜미디어를 지지하며 성인과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독일 전역에서 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90%와 청소년의 96%가 평일 매일 사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특히 청소년 10명 중 8명은 하루 1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에는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소셜미디어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했다. 성인 77%, 청소년 61%는 “소셜미디어가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성인과 청소년 모두 소셜미디어가 집중력, 학업 성취도, 대인관계, 자아정체성, 정치적 의견 형성 등에 해롭다고 인식했다. 다만 ‘정보 습득율’으로서의 기능만은 긍정적으로 평가돼, 성인과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동의했다.

성인 85%와 청소년 47%는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했고, 성인과 청소년의 과반수는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와 함께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의 확산도 경계하고 있다. 컴퓨터 과학자이자 인공지능 전문가 찰리 캐틀렛(Charlie Catlett)은 “가장 인기 있는 AI 앱은 ‘동행 챗봇’으로, 온라인에서 원하는 ‘대화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 피드와 그에 연관된 광고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시편 119:123,125)**

하나님,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분별력 있게 사용하지 못하여 차라리 소셜미디어가 없는 세상을 원한다는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는 독일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정보에 대한 궁금증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이들에게 부어주사 성경 앞으로 독일의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사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독일 되게 하소서.

### ▲ 차드 하원, 대통령 무제한 연임 가능 개헌안 승인

아프리카 차드의 하원이 15일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애고 임기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연합 뉴스가 AF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여당인 애국구원운동(MPS)이 제출한 해당 개헌안은 현행 5년(1회 연임 가능)인 대통령의 임기를 연임 제한 없는 7년으로 늘리고 국회의원의 임기도 5년에서 6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총리 직위도 신설했으며, 정부 구성원의 면책 특권을 폐지해 직무 수행 중 저지른 경제·금융 범죄에 대해 법정에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개혁보다는 보여주기식으로 부패·범죄 처벌을 정치적 탄압 도구로 활용한 중국·러시아 사례와 유사한 길로 볼 수 있다. 개헌안은 이날 하원 회의에서 171표의 찬성에 단 한 표의 반대나 기권 없이 통과됐다.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상원에서 전체 의석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마하마트 이드리스 데비 대통령은 2021년 4월 아버지 이드리스 데비 전 대통령이 반군의 공격으로 숨진 이후 과도 군사위원회 의장을 맡으며 군정을 이끌다가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를 거쳐 집권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나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시편 103:15-17)**

하나님, 대통령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헌법 개정안으로 30년 넘게 장기 집권했던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려는 현 정권의 탐심과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소서. 한낱 풀과 같고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보잘것 없는 인생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계시하여 주사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나라의 정의와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백성들을 돌보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 ▲ 카자흐스탄, 강제 결혼·신부 납치 금지법 발효

카자흐스탄에서 강제 결혼과 신부 납치가 금지됐다고 17일 뉴스1이 AF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경찰은 16일 성명을 내고 새 법이 발효됨에 따라 강제 결혼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강제 결혼·신부 납치와 관련된 처벌 조항은 있었지만 허점 때문에 집행력이 약했고, 새 법은 그 빈틈을 메워 명확히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이번 조치는 강제 결혼을 방지하고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부 납치 또한 법으로 금지됐다. 경찰은 “이전에는 자발적으로 납치된 사람을 풀어주면 형사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카자흐스탄에는 강제 결혼 관련 공식 통계가 없지만, 한 국회의원은 최근 3년간 21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을 납치해 아내로 삼는 전통적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카심-조마르트 토키예프 대통령은 지난해 “일부 사람들은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신부 납치를 강요하려 한다”며 “노골적인 반계몽주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8:3-4)**

하나님,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신부 납치와 강제 결혼이라는 가증한 풍속을 행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새 금지법을 통해 악습이 근절되게 하시고 강력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체를 대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영혼들을 복음의 강력한 빛 앞에 세워 주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온전한 연합이 가정 안에서 이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행하여 주가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